

보도시점

2026. 7. 7.(화) 14:00

배포

2026. 7. 7.(화)

해수부 장관, 흥아해운 본사 이전계획 발표식 참석

- 흥아해운, 글로벌 해운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산으로 본사 이전 결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7일(화)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흥아해운 본사 부산 이전 발표식 행사에 참석했다.

흥아해운은 1961년 부산에서 설립되어 1976년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으로,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액체석유화학제품 등 특수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대표 선사이다.

흥아해운은 친환경 대형선 중심의 글로벌 특수선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클러스터가 위치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1986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였던 흥아해운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이전하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환 (051-773-5715)